

일본어의 의뢰표현의 일고찰

- 수수동사에서 파생된 의뢰형을 중심으로 -

송혜선*

hyesunsong@naver.com

차례

1. 들어가며
2. 선행연구 및 연구대상
3. 「てくれる／くださる」 동사에서 파생된 의뢰형
4. 「~てもらう／ていただけ」 동사에서 파생된 의뢰형
5. 맺음말

요지

やりもらい構文において「てくれる／くださる」構文と「てもらう／いただく」構文は本来は異なる構造の構文であるが、依頼構文になると話し手が聞き手に依頼するという依頼構文の構造になり、「てくれる」構文と「てもらう」構文の構造の違いから開放されて同じ構造の構文になる。日本語の「てくれる／くださる」動詞と「てもらう／いただく」から派生した依頼形は話し手のgenderの区別と、聞き手への待遇の違いで多様な形が使われており、幾つかの形「てください」「てちょうだい」は依頼形から聞き手の行動へのすすめ(婉曲的な命令)の意味までをカバーしていることが分かった。

키워드 : 수수동사, 의뢰, 권유, 성, 대우(待遇)

1. 들어가며

수수동사의 구문에는 이익의 주체와 이익의 대상이 구문에 존재하고 있고 구문에 따라서는 이익물이 더해지거나 한다. 그와 같은 수수동사의 구문의 문의 내부구조에 이익의 수여자(授与者)와 이익의 수익자(受益者)가 존재하지 않고 화자가 청자에게 영향을 끼치는 구조로 이행하게 되면 의뢰의 구문으로 이행하게 된다. 일본어의 의뢰의 표현의 대부분은 수수동사로부터의 파생이고 원래 의뢰라고 하는 문말표현의 의미는 화자의 이익과 관계가 깊은 영역이기 때문일 것이다.

2. 선행연구 및 연구대상

일본어의 의뢰표현을 본격적으로 다룬 선행연구에는 佐藤(1992)가 있다. 佐藤는 의뢰에 관하여 「상대에게 동작의 수행을 부탁한다」라고 정의하면서 「てくれ」「てください」形이 의뢰의 모달리티의 의미가 되는 경우에는 문의 인칭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동작자가 2인칭이라는 것이 의뢰구문의 본질적인 조건이라 하고 있다. 더욱이 의뢰구문은 화자에게 있어서 청자가 누군인가, 자신과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인가 하는 화자의 청자에 대한 배려가 있는 구문이라고 하면서 「てくれ」문은 윗사람인 청자에 대해서는 사용되는 일이 없는 데에 반해 「てください」문은 아랫사람으로부터 윗사람에게, 또는 윗사람에서 아랫사람에 대해, 동료 등에 대해 제한 없이 사용되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佐藤(1992)는 화자의 성별의 면에서 「てくれ」는 화자가 남성인데 대해 「てください」는 남성이나 여성,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佐藤에서는 「~てくれ」와 「~てください」만이 연구대상이 되어 있고 의뢰표현의 전체를 망라하는 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佐藤(1992)의 연구를 이어 받아 수수동사구문에서 어떠한 프로세스로 의뢰구문으로 이행하는가 하는 그 과정을 파악함과 동시에 일본어의 의뢰표현 전체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의뢰표현의 전체상을 고찰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연구대상은 「~てくれる」동사에서 파생된 「~てくれませんか」「~てくれる(か)?」「~てくれないか」「~てくれ(よ)」와, 「くれる」동사의 존경어인 「てく

ださる」동사에서 파생된 「～てくださいませんか」「～ください」形과 「～もら
う」동사에서 파생된 「～もらいたい」「～もらえないか」 및 그 겸양어인 「てい
ただく」동사에서 파생된 「ていただけませんか」와 「～ていただけますか」「～て
ちょうだい」 등이 그 대상이 된다.

3. 「てくれる／くださる」동사에서 파생된 의리형

「てくれる」구문은 이익의 수여자(授与者¹⁾)가 3격이 되고 이익의 대상이 2격 및
3격, 후치사ノタメニ로 나타나 3격의 이익대상물²⁾이 더해지거나 하는 구문을 화자
가 이익을 받는 이익의 수익자(受益者)의 입장에서 표현하는 구문이다.

<이익의 수익자가 3격의 구문>

a. 太郎が次郎を許してくれた／くださった。

→a'許してくれないか／てくださいませんか (等)

<이익의 수익자가 2격의 구문>

b. 太郎が次郎に日本語を教えてくれた／くださった。

→b'日本語を教えてください (等)

<이익의 수익자가 ノタメニ의 구문>

c. 太郎が次郎のために掃除をしてくれた／くださった。

→c'掃除してくれませんか／ください (等)

이와 같이 수수동사의 구조(위의 예문에서는 a, b, c와 같은)에서 문의 내부 구조
에 이익의 수여자(授与者)나 이익의 수익자(受益者)가 존재하지 않고 화자가 청자에게
영향을 끼치는 구조(위의 예문에서는 a' b' c'와 같은)로 되면 화자가 청자에게

-
- 1) 본고에서는 편의상 이익을 주는 사람을 수여자(授与者)로, 이익을 받는 사람을 수익자(受益者)로 명명하기로 한다.
 - 2) 3격의 이익의 대상물이란 예를 들면 「太郎が友達に本を送ってやった／くれた」와 같은 구문에서 3격으로 나타나는 「本を」가 이익의 대상물이다.

어떤 행위를 하도록 의뢰하는 구문이 된다. 「~てくれる」 동사 및 「~てくださる」 동사에서 파생된 의뢰형은 화자와 청자간의 대우적인 측면과 gender의 측면이 더해져 다양한 형태를 이루고 있다.

3.1 待遇의 측면에서 청자가 윗사람이나 외부의 사람일 경우

화자가 청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청자가 화자와는 소원한 외부의 사람³⁾에 대해서는 「~てくださいますか」「~てくれませんか」「~てくれますか」「~てください」 등의 형태를 사용한다. 이 형태는 화자가 여성이나 남성이나 gender의 구별없이 사용되는 형태이다. 또한 그 형태 중에서 「~てくださいますか」「~てくれませんか」「~てくれますか」형은 화자가 청자에의 어떤 행동을 의뢰하는 의뢰의 의미만을 담당하는 형태로서 사용되고 「~てください」는 의뢰만이 아닌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권유하는(완곡한 명령)의 의미까지도 담당하게 된다. 의뢰형 중에서 대표적인 「~てください」는 화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의뢰하는 의미에서 「なさい」의 영역인 청자의 행동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명령하는 의미까지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화자의 gender⁴⁾의 구별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서는 「~てくれませんか」「~てくれますか」「~てください」「~てくれる?」「~てくれない?」 등이 있다. 또한 이 형태는 화자와 청자의 대우적인 면이 관련되어 청자가 화자보다 윗사람이나 외부의 사람에 대해서는 「てくれませんか」「てくれますか」「てください」형을 사용하고 청자가 화자보다 아랫사람이거나 내부의 사람에 대해서는 「てくれる?」「てくれない?」형을 사용하게 된다.

3) 한국어의 경어 체계가 나이나 사회적인 직함 등에 의해 경어를 선택한다고 한다면 일본어의 경어는 나이나 사회적인 직함 등이 경어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자신의 가족이나 친구, 동료이거나 친한 관계 등 자신이 속한 집단의 사람(내부의 사람)인가 또는 자신이 속한 집단의 밖의 사람이거나 친하지 않는(외부의 사람)인가에 따라 경어를 선택하는 상대경어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편의상 본고에서는 내부의 사람과 외부의 사람이란 용어로 나누어서 고찰하기로 하겠다.

4) 본고에서 말하는 gender란 표현에 있어서의 여성어와 남성어의 구별을 말한다.gender의 구별이 있다는 것은 여성이나 남성 어느 한 쪽이 사용한다는 의미이고 gender의 구별이 없다는 것은 여성이나 남성의 구별이 없이 사용하는 표현이라는 의미이다.

3.1.1 「～てくださいますか」形

- (1) 彼はいつものように串田と向き合って酒をのんでいるうちに、もし返済を用いないのが事実なら、もっと借りようではないか、と提案した。
 「この五万円は有難く頂戴しておきます。返済を要しないことの意味を説明してくださいますか」すると串田は寺田の目をみつま、(劍)

위의 용례(1)에서는 화자인 「彼」가 청자인 「串田」에게 「説明する」라는 행동을 의뢰하는 구문이다. 「てくださいますか」형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화자보다 뒷사람이거나 외부의 사람임을 알 수 있다.

3.1.2 「～てくれませんか」形

- (2) 「——勝手を言って悪いんですが」と浩子は言った。
 「駅前のおそばのKストアまで乗せて行ってくれませんか?」(ラッキー)
- (3) ばあさんは、おもてに出て、人が来るのをまっていた。すると、むこうから、一人のさむらいがやってきた。
 「もし、もし、おさむらいさん、この手紙を読んでくれませんか。わたしは字が読めないのです。」(漫談)

용례(2)와 (3)은 화자인 「浩子」와 「ばあさん」이 청자인 「タクシーの運転手」와 「おさむらいさん」에게 「Kストアまで乗せていく」「手紙を読む」행동을 의뢰하고 있는 구문이다.

3.1.3 「～てくれますか」形

- (4) 老人は始めて、ニヤリと笑って、
 「なかなか頭が悪くないな、君は、やってくれますか。年寄りを助けると
 思って」(うそつくべからず)

용례(4)는 화자인 「老人」이 청자인 「君」에게 「やる」라는 행동을 의뢰하고 있는 구문이다. 이 용례에서는 청자가 화자보다 아랫사람이기는 하나 청자가 외부의 사람이므로 「てくれますか」형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겠다. 위의 용례(1)~(4)중에서 (1)과

(4)는 화자가 남성이며 (2)와 (3)은 여성임으로 gender의 구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형태임을 알 수가 있다.

3.1.4 「～てください」形

「～てください」형은 화자가 청자에게 화자의 이익이 되는 어떤 행위를 하도록 의뢰하는 대표적인 형태이지만 「～てください」의 구문 중에는 청자에게 무언가를 의뢰한다고 하기보다는 청자에게 어떤 행위를 권유하고 있는(완곡적인 명령)용례도 있다. 그 때문에 이하에서는 「～てください」형을 의뢰와 권유로 나누어서 고찰하기로 하겠다.

3.1.4.1 의뢰

보통 의뢰란 주로 화자가 자신을 위해서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부탁하는 의미가 일반적이라고 하겠다. 하지만 「～てください」용례를 조사하면 화자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화제에 나오는 第三의 인물을 위해서 청자에게 의뢰하고 있는 구문도 있다. 화자가 자신을 위해서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てください」형을, 화제의 인물을 위해서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やる／あげる」동사와 결합된 「～てやってください」나 「～てあげてください」와 같은 형태를 사용하게 된다.

< i > 화자의 이익을 위하여

(5) 「先生、教えてください、私はどうしたらいいでしょう？」(相談)

(6) まもなく、料理屋の女中が踊り子をむかえに来た。踊り子は衣装をつけて私に言った。「すぐもどって来ますから、待っていて続きを読んでくださいね。」

(伊豆)

위의 용례(5)와 (6)에서는 화자인 「나」와 「踊り子」가 화자 자신을 위해서 청자인 「先生」과 「私」에게 「教える」「読む」와 같은 행위를 의뢰하고 있는 구문이다.

< ii > 화제의 인물을 위하여

(7) 葉子は島村をきらきら睨んだ。

「駒ちゃんをよくしてあげて下さい。」

「僕はなんにもしてやれないんだよ。」(雪国)

(8) そのとたん、男はぼんとひざをたたいて言った。

「わかった。あの女は腹がへってかさをひろげる元気もないからだ。

きょうからちゃんとめしを食わせてやってくださいよ。」(絵の中の女)

위의 용례(7)과 (8)에서는 화자인 「葉子」와 「男」가, 화제의 인물인 「駒子」와 「あの女」를 위해서 청자인 「島村」와 「だんな」에게 「よくする」나 「食わせる」라고 하는 행동을 하도록 의뢰하고 있는 구문이다. 화자가 자신을 위한 의뢰일 경우에는 「よくしてください」「食わせてください」라고 하는 「てください」형태를 사용하겠지만 화자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화제의 인물을 위해서 청자에게 의뢰하고 있는 구문이기 때문에 「やる」동사와 결합하여 「~てやってください」라는 형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3.1.4.2 권유

「~てください」형은 원래의 의미는 화자의 이익을 위해서 청자에게 어떤 행위를 의뢰하고 있는 구문이지만 화자의 이익과는 관계없이 청자의 행동에의 권유(완곡적인 명령)의 의미를 띄는 경우가 있다.

(9) 「そうですね。この廊下を行って、三つ目の角を曲がって下さい。それから矢印があるからわかりますよ」(ラッキー)

“그러니까, 이 복도를 가다가 세 번째 모퉁이를 도세요. 거기서부터는 화살표가 있으니까 알 수 있을 겁니다.”

(10) 遊佐は上にも下にも知られないよう一人で拭き始めた。

「ありがとう」

「いいんですよ。もう少し休んでください」(危険)

괜찮아요. 좀더 쉬세요.

위의 용례(9)와 (10)의 「てください」형은 앞에서 언급한 용례(5),(6)의 「教えてください」「読んでください」와는 의미의 차이가 있다.(5)와 (6)의 용례의 경우에는 화자가 자신을 위해서 청자에게 「教える」행동과 「読む」행위를 해 주기를 바라는 것을

나타내는 구문이지만 용례(9)와 (10)에서는 화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청자에게 「角を曲がる」, 「休む」라는 행동을 의뢰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청자에게 「曲がる」 「休む」라는 행동을 권유하고 있는 구문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즉 「まがりなさい」 「やすみなさい」라고 해야 할 부분을 청자의 행동에 대한 부드러운 명령(권유)의 의미로서 「てください」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며 「てください」형이 의뢰의 의미에서 「なさい」의 영역이었던 청자의 행동에 대한 명령의 의미의 영역까지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3.2 대우의 측면에서 청자가 아랫사람이나 내부의 관계

화자에게 있어서 청자가 내부의 사람이거나 아랫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는 「～てくれない?」か 「～てくれる?」 「～てくれないか(ね)」 「～てくれるか」 「てくれ(よ)」와 같은 형태를 사용한다. 더욱이 이 형태는 화자가 남성인가 여성인가라는 gender의 차이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가 있는 형태 「～てくれない?」나 「～てくれる?」와 화자가 남성일 경우 사용하는 형태 「～てくれないか(ね)」 「～てくれるか」 「てくれ(よ)」로 나눌 수가 있다.

3.2.1 gender의 구별이 없는 경우

다음의 「てくれない?」と 「てくれる?」형은 화자의 gender와 관계없이 남성이나 여성, 어느쪽이나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이다.

3.2.1.1 「てくれない?」形

- (11) 「ちがう。あんたみたいな人の手にかかたら、あの子は気がいいにならずにすむかもしれないわ。私の荷を持って行っちゃってくれない?」(雪国)
- (12) 「どうしたの!? 鈴ちゃん」
「小母さん、お米少し貸してくれない?」(男68)

3.2.1.2 「てくれる?」形

- (13) ケン坊がコックリ肯く。
「そう。お利口ねえ。ね、ケンちゃん。ちょっとおばさんに教えてくれる?」

(あなた)

위의 용례(11)과 (12)에서는 화자인 「葉子」와 「鈴ちゃん」이 청자인 「島村」와 「小母さん」에 대해서 「持っていく」「貸す」라는 행동을 의뢰하고 있는 구문인데 「てくれない?」 형태를 사용하고 있는 것에서 화자와 청자의 관계가 내부적인 관계(친한 관계)임을 읽을 수가 있다. 또 용례(13)에서는 화자인 「おばさん」과 청자인 「ケン坊」가 처음 만나는 관계이지만 청자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화자는 「てくれる?」형을 사용하고 있다.

3.2.2 gender의 구별이 있는 경우

화자가 남성인 경우에는 「~てくれないか(ね)」 「~てくれるか」 「てくれ(よ)」와 같은 형태를 사용한다.

3.2.2.1 「~てくれないか(ね)」形

(14) 男は口をあいた人のそばへ行った。

「もしもし、このにぎりめしのつつみをとってくれないか。」

(二人のおしょうもの)

3.2.2.2 「てくれるか」形

(15) 八月に入ったばかりの夕暮れ、私は三郎に電話を入れた。

「一杯つき合ってくれるか」 (乳)

위의 용례(14)와 (15)에서는 화자가 「男」와 「私」이지만 양쪽 다 남성이다. 화자가 남성이고 청자인 「口をあいた人」와 「三郎」에 대해서 「つつみをとる」「つき合う」라는 행동을 의뢰하고 있는 구문이다.

3.2.2.3 「~てくれ(よ)」形

「てくれ」형도 화자가 남성일 경우 사용되는 형태인데 앞에서 언급한 「てくさい」と 같이 수수동사구문에서 파생된 의뢰형 중에서도 많이 쓰여지는 형태이다.

(16) その物音に、老人が振り向く。清美を見て、目を見張った。

清美はあわてて紙袋を拾い上げると、階段へと走った。

「待ってくれ！」 (予約194)

(17) 黒崎警部は、ペコ人形のように首をふった。

「あんたの話は、さっぱり分らん」

「こっちもぜんぜん分からないんだ。まあ最初から筋を立てて話すからゆっく
り聞いてくれ。」

と前置きをして、英作は事件の最初からのいきさつをくわしく述べたが、
(過去)

위의 용례(16)과 (17)에서는 화자인 「老人」과 「英作」가 청자인 「清美」와 「黒崎警部」에게 「待つ」「聞く」라는 행동을 의뢰하고 있는 구문이다. 「てくれ」형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부터 화자인 「老人」와 「英作」는 남성이며 청자인 「清美」와 「黒崎警部」와는 내부의 관계이거나 아랫사람이라는 것을 읽을 수가 있다.

4. 「～てもらう／ていただけ」 동사에서 파생된 의뢰형

「～てもらう／いただく」 구문은 이익의 수여자(授与者)가 二격이 되고 이익의 수익자(受益者)가 가격으로 나타나 ㄱ격의 이익의 대상물이 구문에 더해지는 구조를 이루고 있고 화자가 이익을 받는 이익대상의 입장에 서서 말하는 구문이다.

a. 次郎が太郎に許してもらった／いただいた。

→a'太郎が次郎を許してくれた／くださった

→a"許していただきませんか／許していただけませんか

b. 次郎が太郎に日本語を教えてもらった／いただいた。

→b'太郎が次郎に日本語を教えてくれた／くださった

→b"日本を教えてくださいませんか／日本語を教えてくださいませんか

「～てもらう」 구문의 문의 내부구조에 이익의 수여자(授与者)와 이익의 수익자

(受益者)가 존재하지 않고 화자로부터 청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구조로 바뀌면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의뢰하는 구문이 된다. 본래 수수동사 구문으로 쓰여질 때는 위의 용례에서의 「てもらう」 구문과 「てくれる」 구문을 비교해보면 a'와 b'에 보여지듯이 「てくれる」 구문에서는 이익의 수여자(授与者)인 「太郎」가 가격이 되고 이익의 수익자인 「次郎」가 3격 및 2격이 되어 있고 「てもらう」 구문에서는 a와 b에서 보여지듯이 이익의 수익자(受益者) 「次郎」가 가격이 되고 이익의 수여자(授与者)인 「太郎」가 2격이 되는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의뢰구문이 되면 a"와 b"에 보여지듯이 수수동사구문의 구조에서 벗어나 「許してくださいませんか/許していただけますか」 및 「教えてくれませんか/教えてもらえませんか」와 같이 같은 구조의 구문이 된다. 즉 수수동사구문에 있어서는 「てくれる」 구문과 「てもらう」 구문은 다른 구조를 가진 구문이었지만 의뢰구문이 되면 「許していただけますか」와 「許していただけますか」, 「教えてくれませんか」와 「教えてもらえませんか」는 화자가 청자에게 「許す」나 「教える」라는 행동을 의뢰하는 같은 의뢰 구문으로 되어 버리는 것이다. 의뢰 구문이 되면 화자와 청자가 어떤 관계인가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취하게 된다. 「~てもらう」 동사 및 「~ていただく」 동사에서 파생된 의뢰형도 화자와 청자와의 대우적인 관계와 화자가 남성인가 여성인가의 gender의 측면이 더해져 다양한 형태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4.1 대우의 면에서 뒷사람이거나 외부의 사람인 경우

대우적인 측면에서 화자와 청자의 관계가 뒷사람이나 외부의 사람에 대해서 사용되어지는 형태에는 「ていただけますか」「ていただけませんか」「ていただけないでしょうか」「てもらえますか」「てもらえませんか」 등의 형태가 있다.

4.1.1 「ていただけますか」形

(18) 「私もそう思います。ただ、先生もごいっしょに行っていましたか?」(過去)

위의 용례에서는 화자인 내가 청자인 「先生」에 대해서 「行く」라는 행동을 의뢰하고 있는 구문이지만 청자가 「先生」으로 화자보다 뒷사람이기 때문에 겸양형인

「ていただけますか」를 사용하고 있다.

4.1.2 「ていただけませんか／ていただけないでしょうか／ていただけませんか でしょうか」形

4.1.2.1 화자 자신을 위한 의뢰

- (19) 「女一人くらいどうにでもなりますわ。」と、葉子は言葉尻が美しく吊り上げるように言って、島村を見つめたまま、
「女中に使っていたいただけませんか?」(雪国)
- (20) 「だから…あなた、あたしからパパに話せとおっしゃるの」
「ええ。何とか助けて頂けないでしょうか。あなたから重役の方たちに」
(嘘つくべからず)

위의 용례(19)와 (20)에서는 화자인 「葉子」와 「佐久」라는 인물이 화자 자신을 위해 청자인 「島村」와 「あなた」라는 사람에게 「使う」「助ける」라는 행동을 의뢰하고 있는 구문이다. 또한 이 구문에서는 「ていただけませんか」「ていただけないでしょうか」형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자가 화자보다 윗사람이거나 친한 관계가 아닌 외부의 사람임을 읽을 수가 있다.

4.1.2.2 화제의 인물을 위한 의뢰

- (21) 「雪子はたよりの少ない子供ですから、私にまんいちのことがありましたら、
見てやっていただけませんかでしょうか。佐山さんのことは、よく聞かせてある
つもりです。(母の初恋)

위의 용례(19)와 (20)에서는 화자가 자신을 위해서 청자에게 「使う」「助ける」라는 행동을 의뢰하고 있는 구문이었다. 그에 대해 용례(21)는 화자인 내가 화제의 인물인 「雪子」을 위해서 「面倒をみる」라는 행동을 청자인 「佐山」에게 의뢰하고 있는 구문이다. 이와같이 화자 자신을 위한 의뢰가 아닌 화제의 인물을 위한 의뢰에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やる／あげる」동사가 결합된 「てやって／あげていただけませんか」 또는 「てやって／あげていただけませんか」와 같은 형태를 사용하게 된다.

4.1.3 「てもらえます(か)?/てもらえないでしょうか」形

(25) 「ご家族の方でしたら、取りに来ていただけますか?—もしもし、きこえますか?」

「はい」

「来ててもらえます?」(予約)

(26) しばらくして行介はいった。

「大垣さん、さっきいったように、三人だけで話をして見たいと思うんですが、勝手にすけれども、少しの間外の方は遠慮してもらえないでしょうか。」(波)

위의 용례(25)와 (26)에서는 화자인 「会社の人」와 「行介」가 청자인 「清美」와 「大垣さん」에게 「来る」「遠慮する」라는 행동을 의뢰하고 있는 구문이다. 화자가 「てもらう」에서 파생된 「てもらえます?」 및 「てもらえないでしょうか」와 같은 형태로 의뢰하고 있는 것으로 청자가 화자보다 뒷사람이거나 외부의 사람임을 알 수가 있다.

4.2 대우의 면에서 청자가 아랫사람이거나 내부의 사람인 경우

청자가 아랫사람이거나 내부의 사람(친한 관계)인 경우에는 「てもらいたい」「てもらえないか」「てちょうだい」 등의 형태를 사용한다. 청자가 뒷사람이거나 외부의 사람에 대해 사용하는 「ていただけますか」「ていただけませんか」「ていただけないでしょうか」「てもらえますか」「てもらえませんか」는 화자가 남성인가 여성인가의 gender의 구별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에 대해 청자가 아랫사람이거나 내부의 사람인 경우에 사용되는 형태는 gender의 구별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뉘어 지는데 「てもらいたい」는 화자가 남성인가 여성인가의 구별 없이 사용될 수가 있으나 「てもらえないか」는 화자가 주로 남성인 경우에 사용되고 「てちょうだい」는 화자가 여성인 경우에 주로 사용하는 의뢰형이다.

4.2.1 gender의 구별이 없는 경우

「~たい」형은 화자의 희망을 나타내는 모달리티형이나 화자의 희망을 나타내는 「~たい」형이 수주동사 「もらう」동사와 결합하여 사용되게 되면 청자에 대한 의

되형으로 변모를 하게 된다. 「てもらいたい」형은 gender의 구별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의뢰형이다.

- (27) 「入院する時に持ってきた品のなかに、洋酒の古いびんがあったはずだ。さがしてもらいたい。」 (友情)
- (28) 「おまえ達もそれぞれ一人前になったことだし、このさい、ここを出てもらいたい。親父のいない今は、俺がこの家の戸主だ。戸主として、そういつまでも、おまえ達を養うわけにはいかん」 (剣)

위의 용례(27)에서는 화자인 내가 청자인 「看護婦」에게 「洋酒の古いびんをさがす」라는 행동을 의뢰하고 있고, 용례(28)에서는 청자인 「俺」가 청자인 「おまえ達」에게 「ここを出す」것을 의뢰하고 있는 용례이다.

4.2.2 gender의 구별이 있는 경우

화자의 gender의 구별이 있는 형태로서는 남성어로서 쓰여지는 「てもらえないか」와 여성어로서 쓰여지는 「てちょうだい」형이 있다. 「~てちょうだい」형은 보조동사로서의 「~てちょうだいした」형은 결여되어 있으나 「てちょうだい」형태로 의뢰형으로서는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4.2.2.1 「てもらえないか」形

- (29) そういう自分にさすが驚いて、坂を登りつめると、女按摩が歩いていた。島村はなにかつかまえるように、
「按摩さん、揉んでももらえないかね」 (雪国)

위의 용례(29)에서는 화자인 「島村」라는 남성이 청자인 「按摩さん」에게 「揉む」라는 행동을 의뢰하고 있는 구문이다. 「揉んでももらえないか」라는 형태에서 화자가 남성이라는 점을 읽을 수가 있다.

4.2.2.2 「てちょうだい」形

여성어인 「てちょうだい」형도 화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의뢰

하는 경우와 화자의 이익과는 관계없지만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권유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있다.

A. 의뢰

(30) 「駅前でいいんですね？」

運転手が訊いた。

「Kストアまでやってちょうだい」(あなたのラッキーナンバーは)

(31) 「あなた。テレビ消して。少しはあたしに協力して頂戴」(女の決闘)

위의 용례(30)과 (31)에서의 「てちょうだい」의 용례는 화자가 청자에게 「Kストアまでやる」것과 「協力する」것을 의뢰하고 있는 구문이다. 「てちょうだい」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화자가 여성임을 알 수가 있다.

B. 권유

(32) そして思い出し笑いが止まらぬ風だったが、ふと耳の根まで赤らめると、それを紛らわすように掛蒲団の端を持って煽きながら、

「起きなさい。起きて頂戴。」

「寒いよ。」と、島村は蒲団を抱え込んで、(雪国)

(33) 「馬鹿な猿芝居はよしてちょうだい!」

晴美の声は高くなった。(過去)

위의 용례(32)와 (33)에서는 화자가 청자에게 화자의 이익을 위해서 「起きる」「止す」라는 행동을 하도록 의뢰하고 있다기 보다는 청자의 행동에 대해 「起きなさい」「止しなさい」라는 명령을 하고 있는 구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청자의 행동에 대해 「起きなさい」「止しなさい」로 표현하기보다는 「てちょうだい」형을 사용함으로써 명령을 보다 부드럽게 표현하고 있는 효과가 있다.

5. 맺음말

본고에서는 수수동사구문에 있어서 「てくれる／くださる」구문과 「てもらう／い

ただく」 구문은 본래는 다른 구조의 구문이지만 의뢰구문이 되면 화자가 청자에게 의뢰하는 의뢰구문의 구조가 되어 「てくれる」構文과 「てもらう」 구문의 구조의 차이에서 해방되어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의뢰하는 모달리티구조로 변모되어 같은 구조를 이루게 됨을 알 수가 있었다. 또한 「てくれる／くださる」 동사와 「てもらう／ていただく」에서 파생되어 화자가 청자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뢰형이 되면 화자의 gender의 차이와 화자와 청자 간의 대우(待遇)의 차이에 의해 다양한 형태가 사용되고 있음을 고찰할 수가 있었다. 본 고의 내용을 표로 정리한 것이 다음의 표1이다.

〈表1〉

gender의 구별과 대우도의 차이				
「てくれる／ くださる」 동 사 파생	gender의 区别없음	윗사람이나 외부의 사람		①てくださいませんか ②てくれませんか ③てくれますか
				てください
	gender의 区别있음	아랫사람이나 내부의 사람		①てくれない? ②てくれる?
		아랫사람이나 내부의 사람	화자가 남성	てくれないか てくれ(よ)
「てもらう／ いただく」 동 사 파생	gender의 区别없음	윗사람이나 외부의 사람		①ていただけますか ②ていただけませんか ③ていただけないでしょうか ④ていただけませんか ⑤てもらうますか ⑥てもらえないでしょうか
		아랫사람이나 내부의 사람		てもらいたい
	gender의 区别있음	아랫사람이거 나 내부의 사람	화자가 남성	てもらえないか
			화자가 여성	てちょうだい

참고문헌

- 菊池康人 (1997) 「変わりゆく「させていただく」『月刊言語』6月号
 金水 敏 (1995) 「敬語と人称表現—視点との関連から—」『国文学』12月号
 久野 暲 (1994) 『談話の文法』大修館書店
 佐藤里美 (1992) 「依頼文」『ことばの科学5』むぐ書房

용례출전

- 曾野綾子 「砂丘の風」『夫婦の情景』다락원 ——> (砂)
 曾野綾子 「藁の舟」『夫婦の情景』다락원 ——> (舟)
 曾野綾子 「二十五年目の秋」『夫婦の情景』다락원 ——> (秋)
 曾野綾子 「衣山」『夫婦の情景』다락원 ——> (衣)
 曾野綾子 「未熟」『夫婦の情景』다락원 ——> (未熟)
 曾野綾子 「温かいフランスパン」『夫婦の情景』다락원 ——> (パン)
 曾野綾子 「残りの日日」『夫婦の情景』다락원 ——> (残り)
 曾野綾子 「不眠」『夫婦の情景』다락원 ——> (不眠)
 曾野綾子 「松風」『夫婦の情景』다락원 ——> (松)
 曾野綾子 「秋風の中の風鈴」『夫婦の情景』다락원 ——> (秋風)
 川端康成 「伊豆の踊り子」다락원 『伊豆の踊り子』 ——> (伊豆)
 川端康成 「百日堂先生」다락원 『伊豆の踊り子』 ——> (先生)
 川端康成 「母の初恋」다락원 『伊豆の踊り子』 ——> (母)
 川端康成 『雪国(上)』다락원 ——> (雪·上)
 川端康成 『雪国(下)』다락원 ——> (雪·下)
 西本鶏介 『日本漫談』다락원 ——> (漫談)
 芥川竜之介 『羅生門』다락원 ——> (羅)
 芥川竜之介 「トロッコ」『羅生門』다락원 ——> (トロッコ)
 芥川竜之介 「鼻」『羅生門』다락원 ——> (鼻)
 芥川竜之介 「羅生門」『羅生門』다락원 ——> (羅)
 芥川竜之介 「くもの糸」『羅生門』다락원 ——> (くも)
 芥川竜之介 「杜子春」『羅生門』다락원 ——> (杜子春)
 芥川竜之介 「魔術」『羅生門』다락원 ——> (魔術)
 赤川次郎 『予約席』다락원 ——> (予約)
 赤川次郎 「人生相談」『予約席』다락원 ——> (相談)
 赤川次郎 「あなたのラッキーナンバーは」『予約席』다락원 ——> (ラッキー)
 赤川次郎 「予約席」『予約席』다락원 ——> (予約)
 遠藤周作 「女の決闘」『ユーモア傑作選』다락원 ——> (決闘)

- 遠藤周作「嘘つくべからず」『ユーモア傑作選』다락원 ——> (嘘)
遠藤周作「するべからず」『ユーモア傑作選』다락원 ——> (するべからず)
遠藤周作「うちの親爺」『ユーモア傑作選』다락원 ——> (親爺)
阿刀田他高「趣味を持つ女」『失われた過去』日本推理小説選 다락원 ——> (趣味)
高木彬光「失われた過去」日本推理小説選 다락원 ——> (過去)
菊村到「妻よ、安らかに」『失われた過去』日本推理小説選 다락원 ——> (妻)
阿刀田他高「危険な場所」『待っている男』阿刀田他高ミステリ 短篇選 다락원 ——> (危険)
阿刀田他高『待っている男』阿刀田他高ミステリ短篇選 다락원 ——> (男)
阿刀田他高「マルガリータの夜」阿刀田他高ミステリ短篇選 다락원 ——> (夜)
壺井 栄「柿の木のある家」『港の少女』壺井栄童話選 다락원 ——> (柿)
壺井 栄「港の少女」壺井栄童話選 다락원 ——> (港)
壺井 栄「おかあさんのてのひら」『港の少女』壺井栄童話選 다락원 ——> (おかあさん)
壺井 栄「坂道」『港の少女』壺井栄童話選 다락원 ——> (坂道)